



보도시점 2023. 7. 20.(목) 16:30 배포 2023. 7. 20.(목) 10:00

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

-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
- 8개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인재양성도 본격 지원
- 향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, 특성화대학 지정 추진

- 정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,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.
- 또한, 8곳의 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’을 선정하고,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.
 -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0일 제3차 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」를 주재하고, 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.
-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, ▲선도기업 유무 ▲신규투자 계획 ▲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▲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.

<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>

분야	지역	주요 내용	민간투자(기간)
반도체	용인·평택*	메모리 세계1위 수성, 시스템 점유율 10%로 확대	562.0조원(~'42)
	구미	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	4.7조원(~'26)
이차전지	청주	리튬황-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	4.2조원(~'26)
	포항	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(年 70만톤 이상)	12.1조원(~'27)
	새만금	핵심광물가공(전구체 등)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	6.4조원(~'27)
	울산	이차전지 포트폴리오(LFP, 전고체 등) 다변화 거점	7.4조원(~'30)
디스플레이	천안·아산	OLED 초격차 확보,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	17.2조원(~'26)
합 계			614.0조원(~'42)

*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·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, 현재 가동 중인 이천·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

-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▲인·허가 신속처리* ▲킬러규제 혁파 ▲세제·예산 지원 ▲융적률 완화 ▲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.

* 인·허가 타임아웃제: 첨단위 요청 후 60일내 인·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

- 또한, 올해 하반기에는 ▲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▲산·학·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‘범부처 지원 협의체’도 구축할 예정이다.
- 이에 더해,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하여, 내년 상반기중에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▲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▲우수교원 확보 ▲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.

-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, 지난 5월 선정한 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’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·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.

<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- 반도체 특성화대학 >

지역	유형	대학명	특성화 분야
수도권	단독	서울대	회로·시스템, 소자·공정
		성균관대	차세대 반도체
	동반성장	명지대-호서대	소재·부품·장비, 패키징
비수도권	단독	경북대	회로·시스템, 소자·공정, 소재·부품·장비
		고려대(세종)	첨단반도체 공정장비
		부산대	차량반도체(파워반도체)
	동반성장	전북대-전남대	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
		충북대-충남대-한기대	시스템 반도체, 파운드리반도체

□ 그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▲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▲초격차 혁신 생태계 ▲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.

○ ❶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정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), 투자세액공제 확대, 15개 국가산단 지정 등을 지원하였으며, ❷이번 3차 첨단위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·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.

○ 아울러, 정부는 ❸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*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다.

* ▲ 기존 5개 단지: 경기 용인, 충남 천안·아산, 충북 청주, 전북 전주, 경남 창원

▲ 신규 5개 단지: 경기 안성, 충북 오송, 광주, 대구, 부산(소부장경쟁위에서 확정, 7.20)

□ 이날 한덕수 총리는 “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면서,

○ “앞서 「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」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”고 밝혔다.

【붙임】 1.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(안)
2.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결과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우향제 (044-200-2211)
		담당자	사무관	박완섭 (044-200-2212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경모 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호 (044-203-4215)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영윤 (044-203-4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섭 (044-203-4921)
담당 부서	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	책임자	과 장	정상은 (044-203-6845)
		담당자	사무관	김규환 (044-203-6869)



1. 개 요

- (추진배경)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‘글로벌 산업 클러스터’ 마련 필요

* 첨단산업 역량은 국가산업 경쟁력 및 경제 성장의 근간이자 국가의 안보 자산

- (추진경과) 제1차 첨단위 특화단지 추진계획 의결('22.11) → 특화단지 공모('22.12~'23.2) →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* 평가('23.3~7)

* 정부 3명(산업·기재·국토부), 민간 7명(정책·지역·기술 전문가 등)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, 지자체 PT 발표 등을 포함한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 및 평가 진행

2. 특화단지 지정안

- (공모 결과)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에서 총 21개 수요 접수

반도체(15건)	디스플레이(1건)	이차전지(5건)
경기*(8), 인천(1), 충북(1), 대전(1), 전남·광주(1), 경남(1), 경북(1), 부산(1) * 용인, 평택, 이천, 화성, 남양주, 안성 등	충남(1)	충북(1), 경북*(2), 울산(1), 전북(1) * 포항, 상주

- (평가 기준) 「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상 특화단지 지정 취지에 따라,

- ❶첨단전략기술 보유 선도기업 유무, ❷선도기업 및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, ❸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, ❹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

- (지정안) 총 7개 특화단지 : 반도체(2)·디스플레이(1)·이차전지(4)

- △ 반도체 : 용인·평택(메모리·시스템 반도체), 구미(반도체 소재)
△ 디스플레이 : 충남(차세대 디스플레이)
△ 이차전지 : 충북(배터리 셀), 포항(양극재), 새만금(원료), 울산(셀, 소재)

※ 소부장 특화단지 : 안성(반도체)·부산(반도체)·광주(미래차)·대구(미래차)·충북(바이오) 등 5개 지정

3. 특화단지별 주요 내용

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여부, 신규 투자계획,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

① 반도체 : 첨단 시스템·메모리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

경기 용인·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육성, 경북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(웨이퍼·기판) 공급기지로 특화



- (첨단 반도체 : 경기 용인·평택)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·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, 현재 가동 중인 이천·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

⇒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견고화, 시스템 반도체 ‘30년 10% (現 3%)

- (반도체 소재 : 경북 구미)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·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및 경제안보 확보

⇒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(140→200만장/월, '26년)

② 디스플레이 :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거점

차세대 디스플레이(OLED·QD 등) 선점으로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

- (차세대 : 충남 천안아산) 생산 및 R&D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

⇒ OLED를 넘어선 퀀텀닷(QD) 등 차세대(무기발광) 디스플레이의 시발점

③ 이차전지 : **전 밸류체인 완결 및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**

☞ **광물가공(전북)-소재(포항)-셀(충북·울산)-재활용(전북)으로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완결하고, 전고체·리튬황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**



- (셀 : 충북 오창)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생산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를 위한 혁신 역량을 집적화

⇒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 양산공장 가동 ('24년, 연 9GWh)

* 지름 46mm, 길이 80mm의 4680 배터리로 기존 2170배터리 에너지 용량의 약 5배

- (소재 : 경북 포항)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

⇒ 주행거리,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('25년 국내 최대)

- (핵심광물 : 전북 새만금) 전구체(양극재 원가 중 70%)·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핵심광물 가공 및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집적단지 신규 조성

⇒ 전구체(전기차 800만대 분량/연) 양산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

- (미래수요 : 울산) LFP 전지 생산기반 마련, 전고체 전지 개발 등 미래 배터리 수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다변화

⇒ 세계 최초의 차세대 전지 마더팩토리 설립('30년)

4. 향후 계획

- 관계부처, 지자체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, '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 수립('23.下)

* ①산업생태계 조성, ②규제 걸림돌 해소, ③산업 인프라 등을 중점 지원

-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고('23.下)

참고1

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(안)



△ 반도체 : 경기용인·평택, 경북구미

- 경기용인·평택(우수 반도체 산업 생태계 보유 및 민간 대규모 투자 예정지)
- 경북구미(국내 웨이퍼 최대 생산지, 반도체 핵심 원재료 업체 집적)

△ 이차전지 : 충북 청주, 경북 포항, 전북 새만금, 울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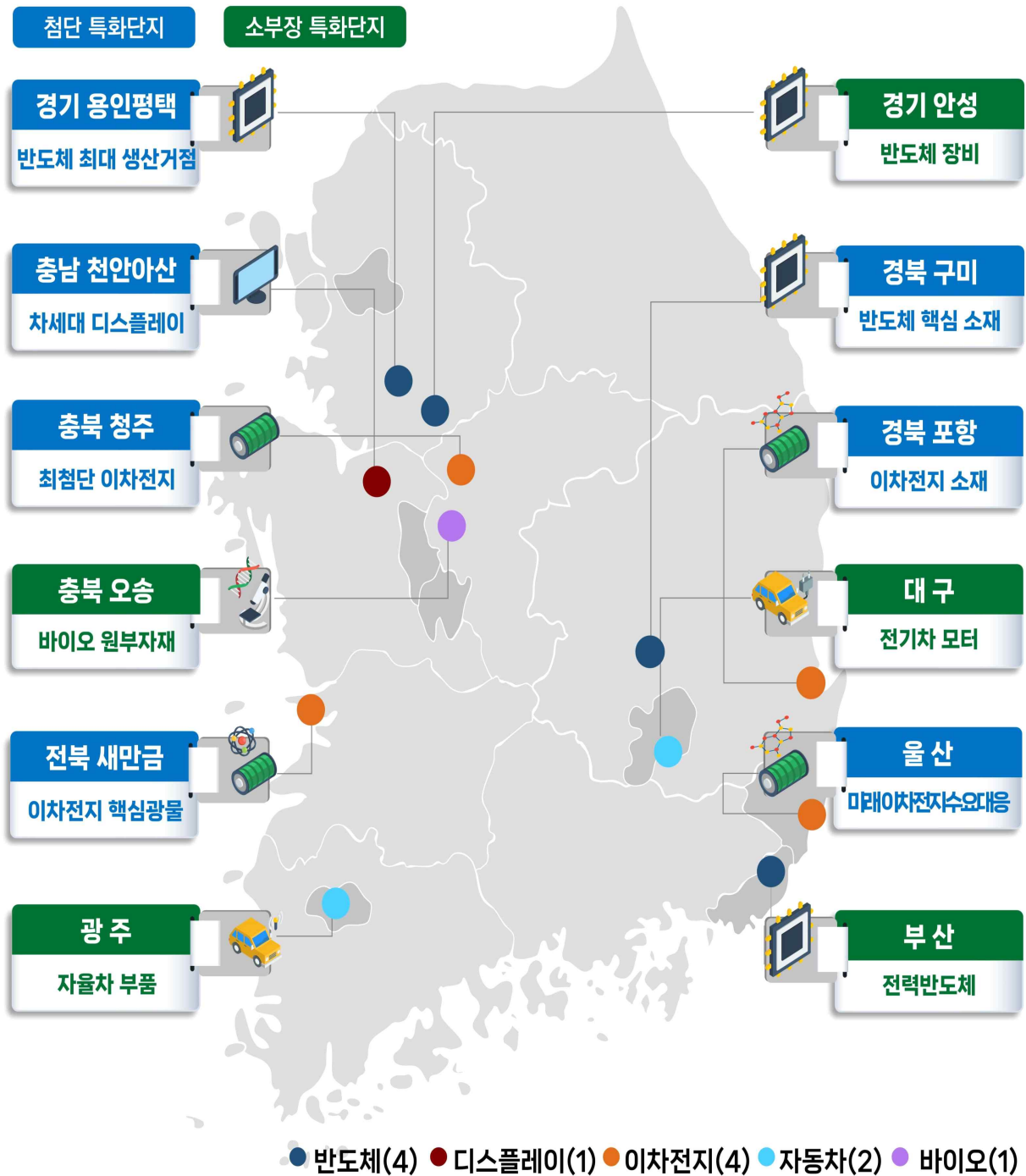
- 청주(차세대 이차전지 선도를 위한 혁신역량 보유), 포항(우수 소재 기업 집적), 새만금(핵심광물 가공 집적지로 성장 可), 울산(미래 수요대응을 위한 역량 보유)

△ 디스플레이 : 충남 천안·아산

- 충남천안·아산(디스플레이 글로벌 선도기업 및 인프라가 고도로 집적)

참고2

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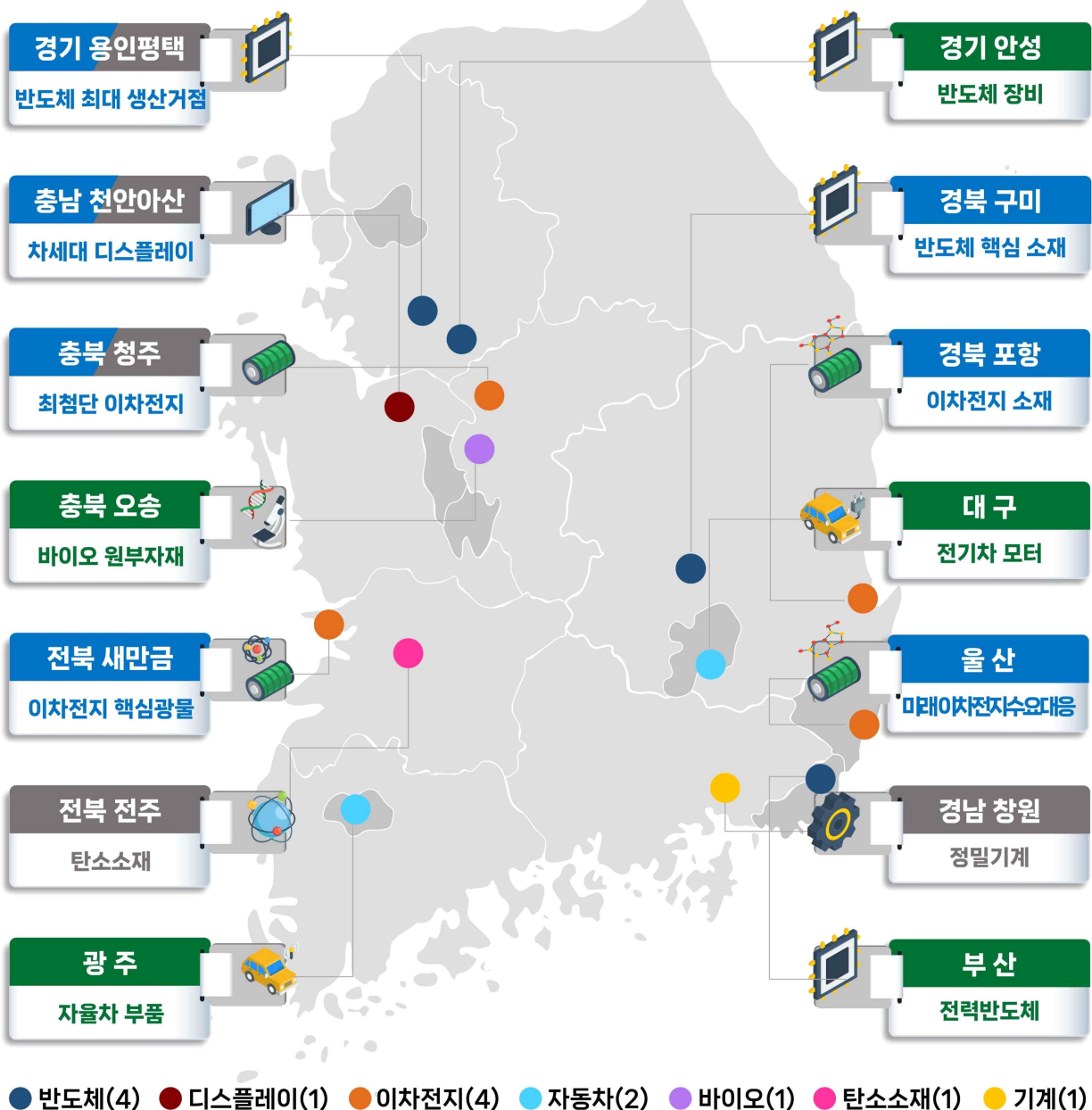


첨단·소부장 특화단지

첨 단 특 화 단 지

신규 소부장 특화단지

기존 소부장 특화단지(21.2)



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-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

1.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

- ‘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(’22.7.19, 국무회의)’ 후속조치로서 ’23년 8곳을 선정하여 年 540억원 지원(대학(연합)별 45억-70억-85억원)

- ▲ (단독형) 수도권 2교: △서울대 △성균관대
비수도권 3교: △경북대 △고려대(세종) △부산대
- ▲ (연합형) 수도권-비수도권 1개: △명지대-호서대
비수도권 2개: △전북대-전남대 △충북대-충남대-한기대

- ☞ ①반도체 학과(전공) 신설·운영, ②관련 학과 재학생 대상 융합 전공 과정 신설 등을 통해 ’26년까지 4년간 지원 예정

※ 대학별 특성화 분야 제시: 명지대-호서대(소부장 및 패키징), 고려대-세종(첨단 반도체 공정장비), 부산대(파워반도체), 전북대-전남대(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) 등

- △(다양한 학문 분야 기반) 융·복합 교육과정 설계 △우수교원 확보 △교육·실습 환경 구축 △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
 - 산업계 인사의 교원 채용 확대, FAB 및 실습장비 확충, 참여기업 협업을 통한 취업 연계·지원, (연합대학 간) 공동·복수학위 수여 등
- 엄정한 성과관리 및 산업계 협업을 통한 사업운영 지원
 - 양적지표(양성·배출인원, 취업·진학률) + 질적지표(산업계 만족도 등) 관리
 - ‘반도체 인재양성지원 협업센터*’ 운영(모니터링, 공동연구, DB구축 등)
 - * 정부, 산업계(산업협회 등), 교육계(대학교협, 전문대학교협, 시도교육감협의회), 연구계

2. 향후 추진일정

-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 개최 및 협업센터 상시운영(’23.8월)
 - ☞ (출범식 연계) ‘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’ 추진 현황 및 정책 공유 워크숍 개최
-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추진(’23.8월)
-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상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확대 검토